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세션 13, “ 히브리인들에게” 설교와 설교 의 기술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이 프레젠테이션과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한 설교를 두 가지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첫째, 이 저자는 설교 전략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둘째,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는 충실한 반응을 키우는 데 항상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뛰어난 설교자였고, 우리는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고 그들의 전략을 분별하고, 적절할 때 그 전략을 모방하여 우리 자신의 설교를 개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히브리서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 시대의 회중에게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설교자의 모범에서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설교의 서두 두 장에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것은 항상 그들에게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설교 수사학이나 설교학을 포함한 모든 수사학의 목표는 청중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연설자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연설자는 청중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학은 항상 그 거리에 관심이 있고 청중을 그 종착점으로 데려갑니다. 수사학의 예술은 어떻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청중이 걱정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중이 자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대로

하는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을 통해 이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의 청중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했을 수 있지만 시작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그는 수신자의 과거와 현재 경험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중을 질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교회에 오지 않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광야 세대와 같은 성경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감상하려면 히브리인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말씀과 달랐으며, 이 말씀하시는 분은 충실하지만 비교적 평범한 하나님의 종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최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들이 당신에게 불만을 품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전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반자이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하나님의 각인과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큰 개인적 비용으로 극히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잠시 육신을 취한 후 신성한 영역으로 돌아와 하늘의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주의를 기울일 만한 최근 역사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청중이 다시 한

번 따르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상상하게 하는 데 무려 10절을 사용합니다 .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시각화하고, 그를 둘러싼 천사들의 예배를 보고, 그들이 자신을 헌신한 아들의 변함없는 확고함과 신뢰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성경구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아들과 그의 메시지에 그들의 완전하고 전적인 주의와 투자를 반응으로 바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한 후, 그는 이 아들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가 지금 그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설교자는 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성취했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상황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그들의 주의를 예수님, 즉 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활동과 사명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선택권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아마도 당신의 증거를 둔화시키고, 제자도를 멈추게 하고, 당신의 걸음을 방해하거나, 인간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회중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타협적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

이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때 이것에 합당한 무게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자신, 회중, 증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에 의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설교자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회중의 상황은 신자들의 마음에 상실, 불안, 불안정의 경험을 각인시키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라는 상황은 그들의 마음에 그 생명선을 굳게 붙잡는 것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각인시킵니다.

회중의 상황은 그들이 무력하고 멸시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길의 지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셔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신 예수의 상황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자유,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의 운명, 지금 일시적인 고통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설교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먼저 겪으셨다가 영원히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계속 따르면서 영광과 존귀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자는 그들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관점을 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들의 눈을 자신의 상황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이 저자에게 있어서,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노래는 감상적인 도피 전략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서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그들이 그 영광을 공유하고 그 도움을 끝까지 누릴 고귀한 주님을 봅니다. 이웃들이 그들에게 강요하려는 수치심과 무력감에 대한 강력한 치료제이며, 이를 통해 그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과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복음에 대한 신자들의 헌신을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보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잠시 희미하게 보는 것은 극복하기보다는 극복하는 데 전념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설교 전략은 우리 회중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관점을 얻고, 상황의 기회와 문제에 충실하게, 그리고 아마도 변혁적인 힘과 투자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 대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줄 두 번째 교훈은 성경으로 그 순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광야 세대 이야기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장으로 이어집니다.

회중이 처한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그 순간의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회중이 그 순간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주요 블록에서 설교자는 이 과제를 위한 자원으로 신중하게 선택된 성경적 선례를 살펴보고, 회중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충실한 제자도를 향해 나아가는 일상적인 관심사를 대신 다시 집중시키고 에너지를 모아 기독교 여정에 대한 진심 어린 투자로 돌아가게 하는 틀로 덧입힙니다. 그가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 영리합니다.

그가 자신의 회중의 상황을 위한 배경으로 펼칠 이 캔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 이야기는 민수기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 95편의 저자는 이미 그 이야기를 설교적으로 적용했고, 우리 설교자는 이 적용을 자신의 진입점으로 선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역 때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시편 95편의 익숙한 경고를 사용하고 민수기 14장을 회중의 상황에 대한 해석적 오버레이로 사용함으로써 설교자는 다시 한번 청중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전략적 답변을 안내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진짜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 위협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서 나가기 위해 하는 그런 관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굳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약속과 그의 선의와 그 약속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말했듯이, 영적 경화증,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불신의 사악한 마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검토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고,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으며,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으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진하여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1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 정찰하게 했습니다.

10명은 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도시들이 너무 잘 요새화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했고
동료들에게 확신에 찬 신뢰로 전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대다수의 보고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사막에서 죽게 하신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사막에서 죽을 것이지만 요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아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세대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기 위해 교활하게 일하신다고 비난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죄의 힘에 속았습니다. 인간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삶은 고기와 같은 실질적인 위안에 대한 욕망은, 비록 그
대가가 노예 생활이더라도,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약속된 목표에서 돌아서 노예
생활에서 제공되는 덜 좋은 것으로 돌아감에 따라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다시 10장 19절에서 25
절에서 설교자는 이 예가 원래의 청중들에게 마음에 와 닿게 할 것입니다.

광야 세대처럼 그들 역시 그들이 알고 있던 삶의 편안함과 포옹에서
벗어나 신이 정한 운명을 향해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들 역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갈 약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선구자인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는 완벽한 순종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들이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그 문턱을 넘으면서 이웃의 지속적인 적대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들이 잃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계속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값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일까요? 만약 이 약속들이 실현된다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의 도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웃의 수용과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즐기려는 갈망으로 돌아서서, 신뢰의 부족과 단기적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굳어질까요? 어떤 마음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사회의 의견과 적대감을 더 중시하고, 약속된 것을 얻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도 그들의 헌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동료 중 일부는 이미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는 것을 중단했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장소와 교제에서 물러섰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회중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성경적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은 그의 설교를 완전히 훼손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중을 문턱이 아니라 출발 게이트에 묘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문턱의 정신적 틀은 선택의 엄숙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비용을 기꺼이 치르거나,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삶으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정신적 틀은 설교자가 회중이 다루어야 할 주요 문제로 보기를 바라는 문제를 강화합니다. 그들은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까? 그리고 그것은 인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일하게 현명한 선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행의 어려운 부분은 끝났고, 그들은 약속된 고향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투자하고 약속된 보상에 도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교자는 10장 35절에서 그것을 명확히 합니다. 설교자가 여기서 약간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회중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그런 문턱에 있었는지 전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하기 위해 1년 안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시기적으로 그들을 그 문턱을 넘도록 인도한 박해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하늘의 고향,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자가 이 이야기와 선의로 문턱에 서는 이 정신적 틀을 적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자신의 헌신으로 문턱에 서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매일, 포기하라는 유혹과 압박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문턱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래로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뒤에 남겨둔 삶과 교제를 그리워하며 돌아볼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문턱의 정신적 틀과 문턱에서 스스로에게 제시되는 명백한 선택은 회중의 상황에 대한 견해를 재구성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강요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지지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그 약속에서 오는 위안, 안전, 확신을 지지하는가? 사람이 그 질문에 답하고 어느 쪽으로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는 또는 그녀는 확실히 그의 또는 그녀의 영적 여정에서 문턱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전략은 우리 회중이 처한 상황을 오랫동안 면밀히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분별하려고 노력한 다음, 성경의 신성한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 순간의 진짜 과제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중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 번째 전략은 우리 회중을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이것을 접합니다. 이것은 종종 그의 주장에서 여담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그의 설교 중간에 일종의 경종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 이 세 번째 움직임에서 설교자는 설교의 전진 움직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 회중에게 책임을 묻고,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그들 에게 영적 성숙에서 비롯된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는 것을 매우 담대하게 알립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에서 우리는 회중이 받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척도에 따라 살도록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설교자를 듣습니다. 설교자의 평가에 따르면, 그들 중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중 내에서 그리스도교 지도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덜 성숙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을 강화하고, 양떼에서 멀어져 가는 양을 찾는 목자처럼 이중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멍청한 양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독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룬 것에 맞춰 나아가자. 많은 신자들이 이 지점에서 압박을 받는 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거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일시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진실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들은 세례나 견진성사 때 한 서약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례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우리 회중에 받아들일 때 한 약속, 즉 그들이 영아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지지하고 양육하는 회중에서 자라면 받아들일 신앙을 키우고 격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회중이 이러한 서약을 실천한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러한

서약이 실천될 것이라는 일관된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서약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이러한 서약에 충실하기 위해 스스로를 투자하는 한 회중에서 자존감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회중이 성숙하고 제자가 되도록 촉구하고,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한 것처럼 완전함이나 성숙함에 따라 태어나도록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세례, 개종, 견진, 또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위대한 지속적인 변형 과정의 유충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도록 돕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도록 더욱 추진하고 그 여정에서 서로를 돕는 더 큰 책임을 지도하도록 부름을 줍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만을 진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의 진로를 계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만 진실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5:11-14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보낸 우리에게 교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아는 바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더욱 열렬하고 온 마음으로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권고하고, 도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써 말입니다. 설교자는 영적 성숙에서 비롯된 위대한 것을 회중에게 기대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세션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에 대한 값비싼 감사의 기대를 모델로 삼는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청중이 받은 선물과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호의에 대한 인식과 감사를 높입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반응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그들 자신의 경험과 의식 속에서 비례적으로 더욱 현실이 됩니다. 이러한 은사와 특권에 대한 인식은 감사의 우물이 되어 증거, 그리스도인의 헌신, 봉사와 전도의 행위라는 새로운 강으로

숫아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세 번째 설교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에게 영적 성숙에서 비롯된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이 설교자가 모델로 삼은 네 번째 설교 전략은 간단합니다.

육즙이 가득한 내용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설교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운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하는 데 4개의 장을 할애합니다

특히 신성한 성경이 인간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혀 말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정말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또는 예루살렘의 제단보다 진영 밖의 십자가가 더 나은 속죄의 날에 더 적합한 제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설교자는 그저 어려운 질문을 한 다음 맴돌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신성한 텍스트와 고대 의식을 깊이 파고들어 이해하고, 어려움을 인식하고 처리하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답을 공식화했으며, 따라서 이 예수 신학을 중심으로 구축된 삶의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를 만든 설교자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주요 신학자, 윤리학자, 성경 해석자로서, 신성한 전통의 대변인으로서의 일에 말씀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도전합니다.

매주 목사들에게는 100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특정한 환경이나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 전반에서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운 질문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읽고, 성찰하고,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 데에는 100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구민들이 이 세상에서의 조각난 삶의 조각들과 신성한 전통의 조각들을 진정으로 일관되고 책임감 있고 심지어 심오한 방식으로 하나로 모으도록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행정 업무가 미끄러진다면

직원 교구 관계 위원회나 연례 보고서 독자들로부터 많은 긍정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설교자는 이것이 사실 설교자로서 우리의 일이며, 우리 일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바쁜 목사 증후군의 맹공격으로부터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책임의 한 측면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설교의 우수성을 위한 그의 네 번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고 도전적인 질문,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의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그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분별력 있는 응답을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파헤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이 진짜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답을 얻기 위해 성경과 기독교회의 유산을 탐구하는 엄격한 작업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행하신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작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촉구하는 응답이 실제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자는 제자도와 선교에서 급진적이고 지속적인 분별력의 기초로서 깊은 신학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직원 교구 관계 위원회 위원보다 더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기초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 위원회 위원들이 교회 회원들의 삶과 그들 자신의 삶에서 그 열매를 더 많이 볼수록,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더 많이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우리에게 줄 마지막 교훈은 회중의 우수성에 대한 열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설교 의 대부분 11장, 12장, 13장에서 나옵니다 .

이 설교자는 우수성을 장려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수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열정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명예와 자존심을 얻고자 하고 인생에서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공감합니다.

그는 회중의 우수성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열정이 비기독교 사회에서 제시하는 모델에 따라 성공으로 잘못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풀어줍니다. 대신 이 설교자는 낙담하고 불명예를 당한 사람들이 야망을 더욱 온전히 깨닫도록 격려하지만, 그렇게 하되 신을 향한 방향으로, 그리고 하늘의 박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수십 년 전에 *Lifestyles of the Rich and Famous*라는 인기 있는 쇼가 있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그것을 충실히 보셨고, 저는 종종 그들과 함께 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궁전 같은 저택을 둘러보고, 유명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내레이터가 좋은 삶이라고 칭찬한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룬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경하며 자랐고, 그들을 본받고 같은 성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는 결코 그 황금시간대 쇼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위대해지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누리려면 그런 쇼에 나타난 가치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설교자는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설교 전반에 걸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동시에 설교자는 회중에게 다른 쇼인 신을 향한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보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성한 역사 전반에 걸쳐 높은 성취자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회중이 이전에 겪었던 수난의 모범이 선행되고, 12장에서 예수의 모범으로 완성되어, 그러한 쇼에 일종의 희망과 일종의 시즌 피날레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세속적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지위와 위치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심어주신 더 큰 비전을 두려움 없이

추구함으로써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순교자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린 선택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닥치는 불명예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영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설교자의 신학에는 번영의 복음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번영은 종종 이 세상의 윤리와 가치에 대한 적응에서 비롯되고, 그 자체를 위한 고통의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은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을 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승리와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회의 각광에서 멀리 떨어진 삶, 심지어 박탈, 경멸, 조롱을 받는 것까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사례, 일시적인 상금에 대한 사소한 추구에서 벗어나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추구하는 것의 사례는 끝없이 늘어날 수 있으며 늘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회중을 이 관중들로 둘러싸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과 동료 신자들을 우리의 공유된 목표의 현실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거룩한 방향으로 우리의 야망을 일깨울 수 있는 삶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구름으로 둘러싸는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 주변의 다른 목소리, 즉 미디어의 목소리이든 쉽게 감명받는 지인의 목소리이든, 우리 사회가 성공을 평가할 때 성공 사례인 사람들로 우리 주변의 스탠드를 다른 종류의 사례로 가득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영웅주의에 대한 경건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밝힙니다. 우리가 존경하거나 심지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영웅에게 성공과 영광을 가져다준 가치와 야망을 내면화하려는 끌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웅을 잘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경쟁을 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편의 영화로 2,0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사실상 익명으로 사역하고, 삶을 고치거나 도심의 어린이들을 멘토링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우리는 실리콘 밸리의 거물들에게 감명을 받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고, 아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기업가들에게 감명을 받으니까? 우리는 프로 운동선수들의 경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행보에 관심, 심지어 집착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사례보다는 믿음의 사례들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부자와 유명인의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부자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께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역사는 놀라운 믿음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야 할 믿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발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거대한 구름 같은 증인들은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순교자들, 또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북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성령이 거룩한 야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에 위대하다는 비전을 우리 회중의 눈앞에 두라고 우리에게 촉구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에서 삶과 그 도전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여 청중이 전심전력하고 부지런히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도전에 대한 승리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우리가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위대한 경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전에 성공적으로 치른 경연 대회이며, 그들은 이제 자신의 승리 후 통과한 천상의 관중석에서 우리 자신의 경주나 레슬링 경기를 지켜봅니다. 인생은 끝까지 인내하고, 제자도, 증거, 봉사에 온전히 투자하고, 잘 달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을 제공하는 경연 대회입니다. 인생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특정한 미덕을 키우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행사하고, 우리의 야망을 다듬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놓이도록 하는 형성적 경험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고귀함을 갖추고 영광스러운 운명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훈련의 예를 사용하여 사회가 회중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바꾸었고, 그 결과 신자들의 야망은 이웃들이 그들을 제자도에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견뎌내고, 참여하고, 끈기 있게 견뎌내는 데 두어질 수 있으며, 사회가 그러한 시도에 대한 목표를 뒤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절정의 경기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업을 위한 훈련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준비와 경력에서 흥분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명예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우리 자신의 설교에서 이러한 흥분을 전달하고, 회중의 야망과 위대함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의 삶으로 다시 흘러들어 거룩함을 위한 고귀한 경연에서 경쟁하고,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추구하도록 도전합니다 .